

숨겨진 비경 '제2단양팔경'...배어난 풍광에 관광객 관심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비경 곳곳에 산재

대한민국 관광1번지로 이름나...경관 일품

대한민국 관광1번지로 이름난 충북 단양의 숨겨진 명소로 알려진 제2단양팔경이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양에는 이미 유명한 만천하스 카워크, 단양팔경, 단양구경시장 등 관광 명소가 즐비하지만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숨겨진 비경 제2단양팔경도 있다.

먼저 1경으로 꼽히는 북벽은 영춘면 상리 느티마을 앞을 흐르는 단양강에 깎아지른 듯 병풍처럼 늘어선 석벽이다.

예전에는 시인묵객들이 뱃놀이를 하며 풍경을 취한 곳으로 봄에는 철쭉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어 더욱 아름다운 풍광

을 빚어낸다.

2경인 금수산은 1016m 높이에 능선이 마치 미녀가 누워 있는 모습과 비슷해 미녀봉이라고도 불린다.

감이 익어가는 10월이면 붉게 물든 단풍과 함께하는 등산객들과 금수산감골단풍축제를 즐기는 축제객들로 성황을 이룬다.

대강면 황정산로에 자리 잡고 있는 3경 칠성암은 7m 높이의 대석 위에 깎아 세운 듯한 7개의 암석이 15m 높이로 치솟아 있다.

바위의 형상이 부처의 손바닥을 연상케 해 예전엔 이 바위에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가 전해진다.

어상천면 삼태산에 있는 4경 일광굴은 입구에서 50~60m 들어가면 중유석이 흘러 만들어진 동굴

안에는 높이 6m의 석관에 비독판이 그려져 있는데, 옛날에 신선들이 비독을 두며 놀던 곳이라는 재미난 설화도 전해진다.

5경 죽령폭포는 소백산에서 발원한 물이 죽령계곡을 흐르다가 9척(약 2.7m) 높이에서 떨어지며 심산유곡의 청정한 숲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6경 온달산성은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 온달의 무용담이 전해오는 산성으로 사계절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달관광지와 함께 영춘면 소재지에 위치했다.

7경 구봉팔문은 소백산의 지맥을 따라 솟아 오른 9개의 봉우리와 사이사이 8개의 골짜기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경관이 일품이다.

8경 다리안산은 소백산 비로봉부터 흘러내린 계곡물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마치 아름다운 동양화 한 폭을 떠올리게 한다.

군 관계자는 "숨겨진 명소를 찾아간다는 신비함에 있어 제2단양팔경은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관광 명소다"라며 "이번 주말 여행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다양한 매력 있는 제2단양팔경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뉴스1

노원 메이커스원서 '3D 프린팅' 체험해요

공유 통해 확장하는 상상력·창의력 증진 운동



서울 노원구는 '노원 메이커스원'이 3D프린팅을 부담 없이 경험해볼 수 있는 메이커 문화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메이커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

구를 이용 스스로 구상하고 조립 개발하는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순히 만드는 행위를 벗어나 만드는 방법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해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는 메이커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차 활용영역이 많아지고 있는 3D프린팅은 메이커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일반인 접근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민을 노원 메이커스원이 해결해 주고 있다.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이 5439명에 이르는 노원 메이커스원은 공릉동(동일로 192길 74 우은빌딩 7층)에 위치하고 있다.

4차 산업형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메이커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설립됐다. 현재 3D프린팅을 비롯한 메이커 교육, 장비대여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월 진행하는 장비 필수교육

뉴스1



확산되는 우한폐렴 공포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원천 봉쇄를 위해 국제선 뿐 아니라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에 대해서도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식품·환경 등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적발 시 벌금형 대신 영영정지...상반기 내 시·군과 협의키로

경기도는 30일 식품·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 차원에서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처분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이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이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위반행위 적발 시 영영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실제 도는 이태명 지사 취임 이후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

해 노력했음에도 2019년 적발건수가 1300여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여건 증가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영영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분 내용만 고지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영정지 등의 조치 권한

을 가진 일선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즉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행위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는 여전히 많다"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 사전예고제 확대 실시 등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빠른 시행을 위해 상반기 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에서는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UV프린터 사용법을 배운다. 매월 중순 선착순으로 5명까지 접수를 받아 진행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3D프린트를 활용해 애니메이션 영화 속 인물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지브러시, 설계 초보자도 큰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Fusion 360, 저작권 문제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로 유명한 작은 컴퓨터라 불리는 아누이노 교육 등이 있다. 개관 후 지금까지 두 과정에 1152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단순 교육을 넘어 훈련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플랫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작년 한해 총 55명이 교육을 통해 취업과 창업에 성공했으며, 올해에는 장애인에도 교육을 통해 취업 등 진로에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성군 '역재방죽공원' 등 산림복지 투자

충남 홍성군이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80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군은 올해 10억원을 투입, 홍성읍 고암리 694-6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완충생태 식재지인 '역재방죽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 공원을 기존 수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며 총 사업비로 총 59억원을 투입한다.

총 면적은 6만6437㎡로 건강증진시설, 힐링트레일로드를 설치할 예정이며 친환경 생태 랜드마크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화도 모색 중이다.

또한 군은 홍성읍 소항리 398-103번지 일원 산림공원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곳에 군은 올해 17억원을 들여 헬스 네트워크, 종합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자연친화형 웰니스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앞으로 군은 11만3379㎡의 부지에 30억원을 투입, 2022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다.

뉴스1

'섬진강 재첩잡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해양수산부는 하동·광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하기 위해 31일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어업, 임업 등 포함), 생물다양성과 전통 농어업지식 등을 보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로, 2019년까지 21개국 57개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등재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하동 전통차 농업시스템, 금산 전통 인삼농업시스템 등 농업분야 4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어업분야에서는 제주 해녀어업 시스템이 2018년 12월에 등재를 신청한 뒤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어촌에 계승되는 어업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1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울릉도서 목격 돼

천연기념물(331호)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이 경북 울릉군 북면과 사동항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29일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5일과 27일 사동 해안과 북면 죽암리에 서 길이 1.6~1.8m 크기의 물범이 몽돌과 바위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했다.

주민들은 "물범에게 다가가지 물속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췄다"

고 전했다.

목격된 점박이물범은 2년생 정도의 어린 개체로, 전문가들은 같은 종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 포시예트 해안에서 대량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국내 서식지는 서해 백령도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22일에는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취수구에 점박이물범 1마리가 갇혀있었다 구조됐다.

제주, 렌터카에 환경기여금 논의 재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에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관광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접점 찾기'에 나선다.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과 렌터카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조례 제정과 징수 시스템 마련 등 관련 절차를 진행, 2022년부터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뉴스1